

[일대일로 맺어진 우리 가족 7] “힘내서 다시 양육 하겠습니다”

2001 / 페이지 수: 3

90년 초, 일대일 사역 팀이 없어 정호욱 전도사가 일일이 일대일을 연결해주던 그때. 최영찬 집사와 강영재 집사 역시 정전도사의 중매로 일대일양육을 위해 만났다. 매주 주일 예배 시간 사이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만남은 강영재 집사 부부와 이철장로 부부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다.

‘양육자 찾아뵙지 못해 죄송’

조용한 성품을 가진 최영찬 집사의 양육으로 두 부부는 양육의 기쁨을 맛보았다. 강영재 집사가 좋았던 것은 또 있다. 온누리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예배에 나오면 좋긴 하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어서 늘 손님 같았었는데 소속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양육을 받을 때 본당이 너무 소란하고 개인적인 삶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양육을 할 때는 꼭 조용한 곳에서 한다. 그리고 일대일로만 한다.

벌써 양육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다. 강영재 집사는 그날을 회상하며 “최영찬 집사님을 그 후에 자주 뵙지 못했어요. 서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른지… 한번씩 궁금해져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동반자가 한번씩 찾아뵈어야 하는데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라고 말한다.

강 집사가 일대일을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우선 동반자의 양육정도를 이해하여 양육기간이 끝나면 양육자반으로 보낼지, 세미나 등에 보내어 공부를 더 해야 할지를 판단한다. 초 신자인 경우는 공부를 더 하도록 격려하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성도에게는 양육자반으로 갈 것을 권한다. 그 원칙에 따라 자신도 양육을 받고 나서는 교회의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찾아 다녔다.

그러다가 양육하게 되면서 2,3번째쯤 만난 동반자가 용내문 집사이다.

그때에도 일대일로 할 수 없어 1대 4로 진행했다. 그 중에 용 집사가 있었다. 당시에 용 집사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양육을 받는 사람이 많고, 초 신자도 함께 있어 개인적인 삶을 물어보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용 집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용 집사가 나름대로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갔다는 것이다. 강 집사는 “용내문 집사는 그 신앙이 참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주차봉사와 성가대 등에서 섬기시지요”라고 동반자 자랑이 늘어진다.

웃음 잃지 않던 양육자

강영재 집사는 일대일 사역 팀에서 대외 사역을 하고 있다. 다른 교회에서 일대일을 하는

것을 어려모로 조심스럽다. 은혜도 많지만 오해도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대일양육을 통해 새롭게 힘을 얻는 교회들을 생각하면 늘 즐겁다.

용내문 집사는 강영재 집사를 이렇게 회고한다. “그 당시에도 일대일 위원회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집사님은 시간에 쫓기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대해 주셨던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일대일을 할 때 절망과 좌절감에 눌려 있었던 용내문 집사는 강 집사와 일대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열정과 함께 삶을 새롭게 가다듬고 일어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용내문 집사에게는 6번째 제자인 정영주 집사는 같은 순의 순장과 순원으로 만나 알게 되었다. 98년 4월 정영주 집사로부터 일대일에 대한 요청을 받고서 5개월 동안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와 개인적인 고민 등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신앙훈련을 받았던 정 집사에게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정영주 집사는 양육이 끝난 후에도 용 집사의 권유에 주차 위원으로 섬겨 용 집사의 자랑이 되어주었다.

용내문 집사는 일대일이란 ‘관계’라고 생각한다. 동반자와 삶을 나누고 연약함을 용납하며 기다려 주고 중보 하는 사람의 섬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서로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어야 한다.

동반자님 죄송합니다

정영주 집사는 용내문 집사와 일대일을 하는 동안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말한다. 같은 느낌으로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지금도 제일 ‘친한 분’하면 용 집사를 꼽는다.

이런 정영주 집사에게는 양육자로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첫 동반자이던 권중기 집사와 또 한명의 성도를 끝까지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이며, 그 후에도 또 한 명과 만났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결국 중단되었다. 양육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하고 삶을 나누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동반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이고 스스로도 아쉬울 따름이다.

동반자였던 권중기 집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한다. 그래도 정영주 집사는 “좋은 아버지 같은 양육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부탁한다.

99년 5월에 시작된 정영주 집사와 권중기 집사와의 일대일 양육은 3분의 2를 마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서로 바빴기 때문이다. 권중기 집사는 포기하지 않고 일대일 팀에 연락해 연결을 부탁했다. 그래서 이어진 것이 민병렬 집사와의 일대일이다. 약 2~3과 남은 일대일 교재의 과정은 민병렬 집사의 도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참으로 열심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권 집사의 일대일에 대한 노력은 다음 해 윤안민 장로의 양육자반에서 열매를 맺는다.

권중기 집사는 “남자들은 양육을 시작하면 빨리 끝내는 것이 좋아요. 직장생활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그럴지요. 한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다시 한다는 것이 어색해지고 그러다보면 결국 중단되고 말지요. 어쩌면 이런 일은 사단의 계약이지요. 그 사단의 계약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길어지면 문제생깁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권 집사는 가장 큰 원칙이라면 ‘속전속결’이다.

권중기 집사의 첫 동반자는 올해 서른인 청년 이창렬 형제였다. 청년이라고 해도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성경지식이 많아 외려 권 집사가 배우는 것이 있었다.

권 집사는 창렬 형제에게 가르치려는 자세보다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가졌다. 처음부터 양육자란 '이정표'가 아니라 '징검다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훌륭한 양육자가 자신을 통해 많이 나오기를 원했다.

창렬 형제와의 일대일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같은 세대가 아니어서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 적었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동년배도 양육했으면 한다.

이 계보의 6대는 이번 9월15일 일대일 양육을 수료하는 이창렬 형제이다. 직장을 옮겨 밤낮없이 바쁜 창렬 형제는 일대일을 하는 동안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성경지식이 꺾어 졌다고 한다.

앞으로 자신이 양육을 하게 된다면 가르치기보다는 삶을 나누고 싶다. 권중기 집사와 조언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었듯이.

*** 출처 : 큐티와일대일**